

결 명 자 (決明子)

都 象 學

결명자(決明子)는 세계적으로 Leguminosae (콩과) 식물인 *Cassia Obtusifolia* Linne (*Cassia*의 꽃은 원래 계피의 古名이고 *Obtusifolia*는 鈍頭의 꽃임)라고 부르고 생약명은 *Cassiae Semen* (決明子)라 하여 종자를 사용한다. 이것의 원산지는 미국 캐나다 등이지만 서울을 비롯 우리나라 각처에서 재배하여 쓰인다.

결명자를 볶은 것을 하부차라 하며 많이 쓰인다.

결명자는 크기가 1.5 m 가량의 1년생 초본이다. 잎은 우수우상 복엽이며 호생하고 소엽(小葉)은 2~4 쌍의 도란형(倒卵形)으로 끝이 둔하다. 6~8월경 황색의 꽃이 피고 가는 선형(線形) 이삭과(繭果)를 맺는다. 그 속에 씨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이 씨의 종피는 딱딱하며 광택이 있고 갈색



석결명

을 나타낸다. 이 藥은 약간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고 길이 3~6 mm, 지름 2~3.5 mm의 기둥상으로 예두(銳頭) 또는 둔두(鈍頭)이고, 양측면에는 엷은 황갈색의 세로로

된 줄과 씨가 있다. 대략 6 각형 모양을 가진다.

성분은 배당체 성분인 Chrysohanol, Physcion, Obtusifolin, Obtusin, Chryso-obtusin,aurantio-obtusifolin, Cassiaside, glucoaurantio-obtussin, aloe-emodin, rhein, 옆은 Kaempferol-3-diglucoside.

藥理作用은 이 종자에서 분리한 Chrysophanic acid-9-anthron (m.p 200°C)은 다음과 같은 dermatophytes의 발육을 억제하며 fungicidal action (살균작용)을 갖는다. 대장성 하제로서 대장을 자극한다는 문헌도 있다.

약효는 건위 정장(整腸)·利尿劑 완하제로 응용되며 決明茶로서 음료하면 야맹증 녹내장등의 안과 질환에도 응용된다.

매에 따라 강장약으로 쓴다는 문헌도 있다. 이것은 잘 건조시켜 종이 봉지에 넣어 습기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매달아 두고 쓰며, 경동시장 등을 비롯하여 각처 전제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사용법은 먼저 종지는 약간 볶아낸다. 볶지 않으면 지방이 많아 우려나지 않을 뿐더러 비린내가 난다.

차 분량은 약 20~30g을 물 약 600 cc (약 3홉) 정도에 넣고 다려 하루에 수시로 마시면 된다.

설탕이나 꿀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 결명차 식물은 有毒植物이 아닌 관계로 부작용이 없어 많이 마셔도 좋다.

결명자 차는 옛부터 소화불량과 눈에 좋은 차로 유명하고 옛 문헌 本經에는 결명자는 청명(靑內障)과 눈이 붉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다스린다고 했고, 日華本草에는 결명자는 간기(肝氣)를 돕고 정(精)에 이롭다 했다. 분말로 하여 술에 개어 증독에 바른다. 藥性本草에는 결명자는 간열(肝熱)과 풍안(風眼)을 다스린다고 했다. 분말로 하여 매일 아침 1술갈씩 공복에 먹으면 백일 후에는 밤에는 물건이 환하게 보인다.

外台秘要에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결명자 2되를 분말로 하여 매복 1술갈씩 식후에 물에 타서 마시고, 經驗良方에는 오래된 눈병에 결명자를 분말로 한 쌀에 넣어 죽을 쑤어 먹으면 유효하다고 했다.

本事方에는 치아가 썩는데 결명자를 달인 즙을 입에 물고 있으면 통증이 그치며, 山屋錄에는 봄에 심은 결명자 엽을 따서 生으로 먹으며 그 꽃을 따서 그늘에서 말려 또한 같이 먹는다. 포차(泡茶)는 끓이고 많이 마시면 풍병을 앓는 일이 없다고 했다. 마제결명의 싹과 각(莢果)은 써서 먹기에 마땅치 않으나 먹으면 오장을 이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약효가 있다

고 한다.

재배법은 배수가 좋은 땅에 폭 2척의 두둑을 만들어 밀거름으로 하비(下肥) 및 목회(木灰)를 물로 희석해서 4월 하순 파종한다.

밭아후 2번 슈음질하고 주간(株間)을 5치(寸)로 한후 6月경 음초(陰草) 및 중경(中耕)하고 소량의 하비를 추비한다. 10월 하순 첩과(莢果)가 검게 익을 때 전초로 채집 건조 후 첩과를 두드려서 씨를 얻는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은 많

고, 생산량은 적어 외국에서 수입도 했었다. 엽차 및 보리차 대신 많이 사용되고 있고 上記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약효를 가지나 맛이 Coffee 등과 같이 당기지 않음이 흠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 생산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야생으로 분포되는 것은 없고, 다만 수입품에 의존되고 있다.

〈필자=동덕여대 약학과교수〉

생활정보

▲ 선풍기

가정용 선풍기는 대개 이동식이므로 자연풍을 방안으로 흡입할 수 있게 창가에 설치해야 시원하다.

또 찬풍기는 무거워서 방바닥에 가까운 방의 아랫부분에 머물게 마련인데 이 찬풍기를 움직여야 시원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선풍기는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밖에 선풍기를 돌릴 때 젖은 타월을 방안이나 선풍기의 안전망 위에 걸어두면 시원한 수증기가 나와서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때 선풍기의 바람을 너무 막으면 모터에 무리가 가 고장의 원인이 된다.

한편 선풍기를 틀 때 선풍기의스

위치는 저속에서 차츰 고속으로 옮겨가야 모터에 무리가 없어 수명이 길다.

계속해서 고속으로 돌리면 모터에 무리가 갈 뿐 아니라 전기 소모량도 31~40%나 늘어나 비경제적이다.

1년에 1회 정도는 구입시의 설명서를 보고 기름을 치는 등 세심한 손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입할 때는 회전시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모터에 심한 열이 나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선풍기는 또 사용장소의 면적에 따라 적당한 것을 써야 에너지낭비가 없다.

사용면적이 2평이내일 경우에는 선풍기 날개의 직경이 20cm, 3평은 25cm, 4평은 30cm, 5평은 35cm 정도가 적당하다.